

# 潮劇 《春香傳》 研究(1)

— 작품의 移植 배경을 중심으로 —

李知恩\*

## <목 차>

1. 서론
2. 潮州人과 潮劇 《春香傳》
3. 唱劇 《春香傳》과 越劇 《春香傳》
4. 潮劇 《春香傳》
5. 맺음말

## 1. 서론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예술은 인간의 사랑에 대해 노래해왔다. 조선시대의 예술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春香傳》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春香傳》은 중국의 고전인 《梁祝》과 《紅樓夢》에 비견되는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의 전통극에 이식되기도 하였다. 그 시초는 越劇 《春香傳》<sup>1)</sup>으로, 이 작품의 등장은 京劇<sup>2)</sup>, 黃梅戲<sup>3)</sup>, 評劇<sup>4)</sup>, 潮劇<sup>5)</sup>, 粵劇, 豫劇, 桂劇, 晉劇, 秦腔, 山東梆子, 龍濱戲 등 다양한

\* 경북대 강사.

1) 莊志가 각색하고, 徐玉蘭과 王文娟이 개편 및 공연하였다.

2) 言慧珠가 개편하고 공연하였다.

3) 時白林이 編曲하였으며, 1954년 12월 30일 嚴鳳英이 合肥 江淮大戲院에서 처음으로 상연하였다.

4) 新鳳霞와 張德福이 주연을 맡았다.

《春香傳》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sup>6)</sup>

본고는 중국으로 이식된 《春香傳》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潮劇 《春香傳》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潮劇 《春香傳》에 대한 潮州人의 사랑은 특별하다. 潮州人은 《春香傳》을 익히 알고, 그 노래를 즐겨 부르며, 한국인을 만나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논문을 통해 潮州人에게 《春香傳》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春香傳》이 중국의 남부인 廣東省 潮州에 전해져 潮劇으로 이식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潮劇 《春香傳》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국식 의상과 무대배경을 사용한 홍콩의 潮劇 《春香傳》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의 의상과 배경을 채용한 潮州의 潮劇 《春香傳》이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 가운데 廣東潮劇院二團의 연출<sup>7)</sup>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 2. 潮州人과 潮劇 《春香傳》

### 2.1 潮州와 潮劇

潮劇(Teochew opera, Chiu-chow opera)은 중국 潮州<sup>8)</sup> 일대를 중심으로

5) 黃秋葵와 楊廣泉이 編曲을 맡았다.

6) 이상의 작품 가운데 越劇 《春香傳》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발표된 논문으로는 양희석 교수의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越劇 春香傳 초탐> 및 <越劇 春香傳 初探>, 이진원 교수의 <越劇 春香傳과 唱劇 紅樓夢: 중국 희극과 한국 창극의 교류에 관한 소고>, 윤진현, 이사유의 <越劇 春香傳 연구> 등이 있다. 越劇을 제외한 다른 극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7) 廣東潮劇院二團의 공연은 인터넷에서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2011년 8월 潮汕 지방으로 현지 조사를 갔으나 직접 《春香傳》을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고, 공연을 녹화한 VCD를 구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8) 潮州市의 면적은 3614km<sup>2</sup>, 총인구는 약 258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潮州 출신의 교포와 화교,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동포는 약 230만에 달한다. 신중국 건립 이후 지

하여 潮州話<sup>9)</sup>로 상연되는 오래된 地方戲이다. 潮州는 華僑의 本鄉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潮劇은 中國 十大 劇種의 하나이자 廣東 三大 劇種의 하나로, 일명 潮州戲, 潮音戲, 潮調, 潮州白字(頂頭白字), 潮曲, 白字仔戲라고도 불린다. 潮劇은 廣東 동부, 福建 閩南 漳州 지역의 雲霄縣, 東山縣, 詔安縣 및 平和縣에서 주로 상연되며, 上海, 香港, 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상연된다. 潮劇은 주로 廟會에서 상연되는데, 여기에는 ‘老爺’ 즉 神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다. 觀衆들은 가족적이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潮劇은 축제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까닭에 潮劇에는 강렬한 민속적, 지방적 특징이 녹아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와 연기, 여기에 지방적인 특색을 융합시킨 潮劇은 潮州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자 중국과 세계 각지에 흩어진 潮州人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도 하다. 潮劇은 2006년 5월 20일 國務院의 비준을 받아 제1차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되었으며, 廣州에는 廣東省 潮劇 발전 및 개혁 기금회가 설립되어 있다.

## 2.2 潮州人과 潮劇 《春香傳》

潮州 지역은 지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가 밀집한 곳이자, 娛神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潮劇은 潮州人의 문화를 전수하는 중요

---

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潮州에 대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潮州는 汕頭市, 潮州市, 揭陽市와 豐順縣 등 潮州話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潮州는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의 潮州市, 汕頭市, 揭陽市 및 豐順縣 등에서 공통적인 생활습관, 민속, 문화배경, 언어 환경, 공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한 潮州人이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킨다. 광의의 개념인 潮州는 이밖에도 陸豐市 甲子鎮, 甲東鎮, 甲西鎮 등 惠來 방언 潮州話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광의의 潮人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9) 潮州話(Tiè-chiu-ue)는 일명 潮汕話, 潮語라고도 하는 방언의 일종으로 閩南語의 次方言으로, 廣東省 동부의 潮汕 지역과 해외 화교 거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매체로 작용한다. 娛神 활동 중의 하나는 潮劇을 연출하는 것이며, 潮劇에 대한 潮州人의 사랑은 특별하다.<sup>10)</sup> 潮州의 廟會에는 수많은 공연이 상연되고 있으며, 노천 戲臺에서 塞戲가 벌어지는 광경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반 상업적 극단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극단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潮州人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潮劇을 접하며 살아간다. 潮劇을 비롯하여 潮劇 《春香傳》을 애호하는 기풍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汕頭日報》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와 潮劇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매일 아침 여섯시, 나는 정확한 시간에 서재로 가서 산터우인민방송국(汕頭人民廣播電台)의 음악채널에서 방송하는 潮劇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어린 시절 잠이 들지 않는 밤이면 나는 어머니에게 潮劇 한 소절을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다. “엄마,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돼요? 안 그러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오른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이시며,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춘향이는 당당당, 몽룡은 둥둥둥.”은 나의 최고의 자장가였다. 눈꺼풀은 서서히 끄뻑끔뻑 감겼고, 꿈속에서 나는 “나비는 쌍쌍이 춤을 추네.”의 輕靈<sup>11)</sup>을 음미했다. 潮曲이라는 요람 안에서 나는 서서히 성장해왔다.<sup>12)</sup> (常平의 <我與潮劇緣份深>)

여기서 “춘향이는 당당당, 몽룡은 둥둥둥.”, “나비는 쌍쌍이 춤을 추네.” 등의 구절은 潮劇 《春香傳》 중 <愛歌>의 한 대목으로, <사랑가>에 해당한다. 작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春香傳》을 자장가로 들으며 자랐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년이 된 작자에게 《春香傳》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10) 중국희곡 연구의 대가인 田中一成은 이곳에서 수많은 희곡을 조사 발굴하였고 중국 희곡의 기원을 연구했을 정도로 潮州 지역에는 수많은 희곡 문화유산이 남아있었다.

11) 輕靈은 가볍지만 효과가 좋다는 뜻이다. <春香傳·愛歌>의 가벼운 노랫가락이 효과가 좋은 수면제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12) 我與潮劇有不解之緣，每天早晨六時，我都準時到書房聽汕頭人民廣播電台音樂台播出的潮劇節目。孩童時候，晚上無法成眠，便會纏媽媽唱一段潮劇。“媽，唱一段好嗎？要不我就不睡覺了。”媽媽瞪我一眼，用右手輕輕拍打我的肩膀，哼起來。“春香當當當，夢龍哆哆哆”是最好的催眠曲，我眨巴眨巴的眼睛慢慢合上了，只在夢裏，還咀嚼著“蝴蝶雙雙舞”的輕靈。在潮曲的搖籃裏，我慢慢地成長。(《汕頭日報》2005년 5월 22일 기사)

潮劇 속에서 나는 늘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예컨대 《春香傳》 제1장에서 春香과 夢龍이 廣寒樓에서 해후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夢龍은 春香의 재능과 미모를 흠모하여, 갖은 방법으로 구애하려 한다. 春香 역시 그의 호방함과 풍류가 마음에 들지만 예법과 도덕의 구속으로 인해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我不曉得)”라는 춘향의 말에 정신이 몽롱해진 夢龍은 한 밤중三更에 뛰어나가 春香을 만난다. 수줍은 春香의 모습은 사랑에 대한 묘령의 소녀의 열망과 조심스러운 모습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나는 며칠이나 곰곰이 음미하였고, 정말이지 나는 한동안 그 의미를 음미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고 말았다.<sup>13)</sup> (常平의 <我與潮劇緣份深>)

작자에게 《春香傳》은 외국에서 이식된 일개 음악극이 아니라 인생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알려준 고전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潮劇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가할 때면 打油詩<sup>14)</sup>를 지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그 소재는 唐詩나 宋詞가 아니라 바로 나와 아침저녁으로 함께한 潮劇이다. 潮劇은 나의 眈美的 근원이다.<sup>15)</sup> (常平의 <我與潮劇緣份深>)

潮劇은 작자의 삶에 깊은 뿌리내린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다. 중국 최고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것은 唐詩와 宋詞이지만, 작자의 일상과 함께 하는 것은 다름 아닌 潮劇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만났던 潮州人들은 《春香傳》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潮劇과 《春香傳》을 접했으며,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이 노래를 들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 중국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從潮劇裏，我總能品出一點人生的沉味。就如《春香傳》第一場，春香與夢龍邂逅廣寒樓，夢龍慕春香才貌，多方試探，春香也愛其個儻風流，然禮教的束縛讓春香欲語還休，一句“我不曉得”把個夢龍迷得神魂顛倒，半夜三更跑去會春香。春香羞羞答答，將妙齡少女對愛情的向往與矜持表現得淋漓盡致。“我不曉得”竟也讓我回味幾天，真有三日不知肉味之歎。

14) 唐代 張打油가 적은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내용과 시구가 통속적이고 해학적이며 平仄과 韻律에 구애받지 않는 옛 詩體의 일종이다.

15) 閑時喜撰打油詩與友分享，素材不是來自唐詩宋詞，卻是與我朝夕共興的潮劇。潮劇，我唯美的淵源。

최근에 潮劇 《秦香蓮》, 《蘇六娘》, 《趙少卿》, 《春香傳》 등 우수한 전통극목을 다시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소회가 새롭게 되살아났다. 특히 《春香傳》 가운데 陳美雲의 노래가락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감미롭게 가슴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潮劇 《春香傳》 가운데 <愛歌>와 <別歌>, 그리고 <獄中歌>는 潮劇의 경전격인 가곡의 하나이다. 潮劇 《春香傳》의 ‘三歌’<sup>16)</sup>는 唐詩 중의 ‘白詩’에 비할 수 있는데, 우물이 있는 곳이라면 李白의 시가 있듯, 潮州人이 있는 곳이라면 <愛歌>와 <別歌>, 그리고 <獄中歌>를 들을 수 있다. 심지어 말을 시작하는 세 살배기 아기도 “춘향이는 당당당, 몽룡은 등등등.”이라며 노래할 줄 안다.<sup>17)</sup> (<關於潮劇《春香傳》>)

潮州人이 있는 곳에는 《春香傳》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조차 《春香傳》의 한 구절을 부를 줄 안다는 이야기는 潮州人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 이는 마치 판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등의 구절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潮州人들이 실생활에서 《春香傳》의 노래를 익숙하게 접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상으로 潮劇과 潮劇 《春香傳》을 애호하는 潮州人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한국의 고전 《春香傳》이 潮劇으로 이식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北韓과 中國의 《春香傳》

春香 설화는 오랜 세월 민간에 유전되다가 18세기 정리되어 작품으로 완성

16) <愛歌>, <別歌>, <獄中歌>를 가리킨다.

17) 最近重溫了潮劇《秦香蓮》、《蘇六娘》、《趙少卿》、《春香傳》等一批優秀傳統劇目，非常感動，重新喚起兒時的種種情愫。尤其是《春香傳》中陳美雲的唱腔，清亮婉轉，入心入肺，令人三日不知肉味。潮劇《春香傳》中的《愛歌》、《別歌》和《獄中歌》，乃潮劇的經典唱段之一。潮劇《春香傳》的“三歌”好比唐詩中的“白詩”，正如有井水的地方就有白詩一樣，有潮人的地方就能聽到《愛歌》、《別歌》和《獄中歌》。甚至連牙牙學語的兩歲幼童也會唱：“春香當當當，夢龍咚咚咚”。(출처: 블로그 ‘老朱會客廳’)

된다.<sup>18)</sup> 《春香傳》은 한반도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판소리, 드라마, 영화, 오페라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가극, 드라마, 영화, 민족가극 등으로 개편되었다. 潮劇 《春香傳》은 북한의 화극과 창극을 중국의 越劇으로 이식한 것을 재이식한 것이기에, 북한의 《春香傳》과 越劇 《春香傳》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한다.

### 3.1. 北韓의 唱劇 《춘향전》

북한에서도 《춘향전》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1948년 李冕相의 민족가극 《춘향》을 시작으로, 1954년에는 창극 《춘향전》이 음악을 보강하여 새롭게 각색되었다. 1960년대에 들면서부터 서도민요의 창법이 창극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64년에 조령출 작, 리면상·신영철 작곡, 김영희 연출의 창극 《춘향전》이 창작 및 공연되었다.<sup>19)</sup>

현재 한국에서 극본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창극 《춘향전》에는 丘甫 朴泰遠(1910-1986)과 曹雲(1900-?)의 작품이 있다.<sup>20)</sup> 박태원과 조운의 창극 《춘향전》은 비록 북한에서 발표되었지만, 작품이 출간되기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이 한반도 이남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sup>21)</sup> 창극 《춘향전》은 북한의 것만이 아닌 우리 한민족 모두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18) 全州土版 《烈女春香守節歌》, 京版 《春香傳》, 漢文版 《水山廣寒樓記》, 《漢文春香傳》 및 抄本 《古本春香傳》등 여러 가지 판본이 탄생한다.

19) 1954년의 창극 《춘향전》이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창극의 형식에 맞게 각색한 수준이었다면, 1964년의 《춘향전》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미학 개념에 맞게 대폭 수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尹龍奎 감독의 영화 《춘향전》(1959), 尹龍奎, 兪元俊 감독의 영화 《춘향전》(1980), 歌劇 《春香》(1984), 피마디식 혁명가극의 특징을 갖춘 民族歌劇 《춘향전》(1988)이 있다.

20) 박태원과 조운의 창극 《춘향전》은 박태원의 《홍보전》, 김아부의 《심청전》과 함께 《조선창극집》에 실려 북한 국립출판사에서 1955년에 출간되었다. 창극 《춘향전》의 정확한 창작 연도는 상세하지 않다.

21) 박태원은 한국전쟁 중에, 조운은 1948년에 월북하였다.

창극 《춘향전》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춘향, 월매, 향단, 리몽룡, 방자, 후배사령, 서리, 중방, 역졸들, 변학도, 목랑청<sup>22)</sup>, 리방, 호장, 호방, 례방, 형리, 통인, 급창, 집장사령, 집사, 정수(鉦手), 옥사정, 사령들, 운봉영장, 순창군소, 곡성현감, 구례현감, 옥과현감, 농부1, 농부2, 농부3, 농부4, 농부5, 농부들, 기생들, 처녀들, 과부들

작품은 총 6막 7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막	광한루	몽룡과 춘향이 광한루에서 만난다.
제2막	1장 백년가약	몽룡과 춘향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2장 사랑가	몽룡과 춘향이 둘만의 사랑을 약속한다.
	3장 이별가	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난다.
제3막	십장가	춘향은 수청을 거부하여 곤장형에 처해진다.
제4막	1장 어사분발	몽룡은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압행한다.
	2장 농부가	농부들이 변사또의 악행에 대해 폭로한다.
제5막	1장 칠성단	월매는 몽룡과 춘향을 위해 기도한다.
	2장 옥중가	몽룡이 옥중에 갇힌 춘향을 찾아온다.
제6막	출도	몽룡이 변사또를 처벌하고 춘향과 재회한다.

<표 1> 창극 《춘향전》의 구성과 내용

총6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구성은 越劇 《春香傳》과 매우 유사하다. 박태원과 조운의 《춘향전》이 越劇 《春香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성이 당시 북한과 중국의 작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구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www.kci.go.kr

22) 睦郎廳은 북한에서 '자기 주권 없이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 3.2. 中國의 越劇 《春香傳》

1953년 徐玉蘭과 王文娟은 上海越劇院의 단원을 이끌고 위문공연차 북한을 방문, 북한에서 개성화극단의 화극 《춘향》과 국립민족예술단의 창극 《춘향전》을 접하게 된다. 작품을 감상한 두 사람은 작품을 이식하여 越劇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다. 북한 外務省의 安孝相이 북한 국립민족예술단의 연출본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sup>23)</sup> 이를 바탕으로 극단의 극작자인 莊志 등이 越劇 劇本으로 이식한다.

越劇 《春香傳》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춘향, 월매, 향단, 이몽룡, 방자, 변학도, 호장, 형리, 서리, 계장서리, 시동 갑·을, 급창, 집장, 중방, 박삼백, 노옥줄, 곡성군수, 순창군수, 운봉수비, 선옥, 두견, 행화, 역졸 數人, 어사 갑·을, 금의 갑·을, 소녀 갑·을·병·정·무·기·경·신, 아역 갑·을·병·정·무, 예기 갑·을·병·정·무·기, 농민 갑·을·병·정·무·기

越劇 《春香傳》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막	廣寒樓	몽룡과 춘향이 광한루에서 만난다.
제2막	제1장 百年佳約	몽룡이 춘향을 찾아가 백년가약이 맺는다.
	제2장 愛歌與別歌	몽룡과 춘향이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다.
제3막	一心	춘향은 수청을 거부하고 몽룡만을 생각한다.
제4막	農夫歌	농부들이 변사또의 악행을 폭로한다.
제5막	제1장 夜禱	월매가 몽룡과 춘향을 위해 기도한다.
	제2장 獄中歌	몽룡이 옥중의 춘향을 찾아가는다.
제6막	賦詩	몽룡과 춘향이 재회한다.

<표 2> 越劇 《春香傳》의 구성과 내용

www.kci.go.kr

23) 당시 조선노동당 소속 지도자였던 南日은 비서에게 1954년 북한 국립민족예술단의 연출본을 번역할 것을 지시하였다.

창극과 越劇의 구성을 비교하면, 창극 제2막 2장 <사랑가>와 3장 <이별가>가 합쳐져 越劇 《춘향전》의 제2막 2장 <愛歌與別歌>가 되고, 창극 제4막 1장 <어사분발>과 제2장 <농부가>가 합쳐져 越劇에서 제4막 <農夫歌>로 통합되었다. 제목에 있어서는 창극 제3막 <십장가>가 越劇에서 <一心>으로 변경되고, 창극 제5막 1장 <칠성단>은 越劇에서 <夜禱>로 변경되고, 창극 제6막 <출도>는 越劇에서 <賦詩>로 변경되었다. 막과 장에서 약간의 통합과 제목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 구성의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그림1> 中國 越劇 《春香傳》

이들 越劇團은 1961년 북한을 방문하여 작품을 상연하였다. 그 후 浙江越劇一團 등 수많은 越劇 극단이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또한 新鳳霞 주연의 評劇과 趙燕俠 및 言慧珠 주연의 京劇을 비롯한 많은 극종과 극단에서 이 작품을 이식하여 상연하였다.<sup>24)</sup> 潮劇 《春香傳》은 1956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작품의 이식과 제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200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7회 BESETO 연극제(中韓日)에서 浙江小百花越劇團의 陳輝玲(春香), 邵雁(李夢龍), 洪瑛(月梅), 顏佳(香丹), 江瑤(房子) 등이 《春香傳》(楊小青 감독)을 상연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4. 潮劇 《春香傳》의 移植과 製作

### 4.1. 潮劇 《春香傳》의 이식과 제작

潮劇 《春香傳》은 潮州 출신 극작가 王菲가 越劇을 이식하여 만들었으며, 작곡은 黃秋葵와 楊廣泉이 맡았다.<sup>25)</sup>

王菲<sup>26)</sup>(1926-1997)는 潮州 출신의 유명 극작가이다.王菲는 1953년부터 潮劇 각색을 시작하여 1998년까지 총 45년 간 102개(상연된 작품은 94개)의 潮劇 극본을 창작, 정리, 개편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春香傳》, 《怒斬楊騰芳》, 《彩樓記》, 《救風塵》, 《紅旗插上大南山》(합작), 《鄭成功》(합작), 《荊軻記》, 《串戲定親》, 《除怪石》, 《江姐》(합작), 《煙花女與狀元郎》 등이 있다. 수많은 移植 작품 중에서 《春香傳》은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극본의 언어는 고아함과 통속성을 겸비하고 있고, 여기에 黃秋葵와 楊廣泉과 아름다운 노래가 어우러져, 潮州人이 사랑하는 작품이 되었다.

작곡가 黃秋葵(1921-2010)<sup>27)</sup>는 1921년 潮陽縣 關埠鎮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戲班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가 감독을 하거나 司鼓나 작곡을 담당한 現代戲로는 《汕頭老虎廖鶴州》, 《紅旗插上大南山》, 《母親》, 《濱海風潮》, 《渡頭歌聲》, 《小女婿》, 《歡迎你入社》, 《白毛女》 등이 있으며, 古裝戲로는 《春香傳》, 《孟麗君》, 《紅樓二尤》, 《張古董借妻》, 《穆桂英》, 《遊

25) 이들의 합작은 '珠聯璧合'으로 칭송받고 있다. 이 외에 黃鍾盛(악기 배치), 範澤華(예술 지도), 方展榮(감독), 陳潔菲(조선무용 감독, 특별초빙), 趙曙明(무대미술), 吳筱南(북장), 林翔鵬·鄭澤桐(조명), 陳瑞泉(음향), 林明弟(도구), 吳文鼎(司鼓), 黃德文·陳實彪·方俊榮(領奏) 등이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26) 필명으로는 江濤, 曉角, 舊客, 王老漢 등이 있다.王菲의 선조들은 대대로 潮州市 天地壇에 거주하였고, 1926년 潮州에서 출생하였다. 中國戲劇家協會 회원이자, 汕頭歸僑作家聯誼會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廣東潮劇院에서 극작을 담당하였다.

27) 1921년 潮陽縣 關埠鎮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3세에 戲班인 老源正興班에 童伶으로 팔려간다.

龜山》, 《孔雀東南飛》, 《風塵二俠》, 《烈女報夫仇》, 《許亞梅鐵山起義》, 《蘆林會》, 《墓前別》, 《孟薑女哭長城》, 《拒父離婚》 등이 있다. 《春香傳》는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는 楊廣泉과 다년간 합작하여 《春香傳》, 《孟麗君》, 《蘆林會》 등 적지 않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의 작품은 곡조의 구성이 치밀하고, 선율이 유창하며, 음악적 인상이 매우 선명하다. 노래는 음반으로 발매되어 널리 불리어졌으며, 특별히 《春香傳》의 <愛歌>, <別歌>, <獄中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불리어지고 있으며, '후세에 전해질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潮劇 作曲家이자 二弦 연주가인 楊廣泉(1915-1987)은 廣東省 澄海縣 東湖鄉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중국 성립 초기에 潮樂 改進黨을 설립하고 主任을 맡았으며, 1952년에 粵東青年實驗劇團을 설립하였으며, 1956년에는 黃秋葵와 함께 《春香傳》을 작곡하여, 명성을 떨쳤다.

#### 4.2. 潮劇 《春香傳》

潮劇 《春香傳》의 시작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조선시대 단오절이며 공간적 배경은 南原임을 밝히고, 경쾌한 노래에 맞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봄놀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愛歌>의 애뜻한 사랑, <別歌>의 애절한 슬픔, <獄中歌>의 눈물과 한탄이 뒤섞인 한의 정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대목이다.<sup>28)</sup> 작품의 결말은 春香과 夢龍이 재회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越劇 《春香傳》에서도 그러하지만 潮劇 《春香傳》에서도 하나의 場이 시작되면 자막에는 시간과 배경을 제시하는 지문이 등장한다. 하나의 場은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배경 안에서 전개된다.

潮劇 《春香傳》은 총 6場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특히 範澤華(춘향), 陳玉(이몽룡), 陳鸞英(월매)이 주연을 맡은 공연(1957년 녹음)은 '三歌'의 절장으로 손꼽힌다.

	내용
第一場 <廣寒邂逅>	이몽룡과 춘향이 봄날 광한루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第二場 <百年佳約>	이몽룡과 춘향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第三場 <愛歌, 別歌>	이몽룡과 춘향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이몽룡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다.
第四場 <冰心玉骨>	춘향은 일편단심으로 이몽룡을 기다린다.
第五場 <夢龍私訪>	이몽룡이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간다.
第六場 <煉獄眞金>	이몽룡과 춘향이 재회한다.

<표 3> 越劇 《春香傳》의 구성과 내용

潮劇 《春香傳》은 越劇 《春香傳》을 상당부분 이식하면서, 나름대로의 개편을 시행하였다. 창극과 越劇의 제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창극	越劇	潮劇
제1막 <광한루>	第1幕 <廣寒樓>	第1場 <廣寒邂逅>
제2막 1장 <백년가약>	第2幕 第1場 <百年佳約>	第2場 <百年佳約>
제2막 2장 <사랑가>	第2幕 第2場 <愛歌與別歌>	第3場 <愛歌, 別歌>
제2막 3장 <이별가>		
제3막 <십장가>	第3幕 <一心>	第4場 <冰心玉骨>
제4막 1장 <어사분발>	第4幕 <農夫歌>	
제4막 2장 <농부가>		
제5막 1장 <칠성단>	第5幕 第1場 <夜禱>	
제5막 2장 <옥중가>	第5幕 第2場 <獄中歌>	第5場 <夢龍私訪>
제6막 <출도>	第6幕 <賦詩>	第6場 <煉獄眞金>

<표 4> 越劇 《春香傳》의 구성과 내용

각 막과 장의 제목에서 潮劇이 또 한 차례의 정리가 진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潮劇에는 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場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에 필요하지 않는

결가지를 삭제하고, 춘향과 몽룡의 형상을 지고지순한 애정의 주인공으로 순화시키고,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작품의 내용을 창극과 越劇, 그리고 潮劇 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은 <사랑가>에서 몽룡과 춘향이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이다.

리도령 : 또 다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 되고,

춘 향 : 도련님은 인경마치 되어

리도령 : 아침이면 三三천

춘 향 : 저녁이면 二八수

합 창 : 길마재 봉화 세 자루 꺼지고,

남산 봉화 두 자루 꺼지면,

인경 첫마디 치는 소리 텡뎡 칠 때마다,

다른 사람 듣기에는 인경 소리로만 알아도,

리도령 : 우리 돌인 춘향 텡-

춘 향 : 도련님 텡으로 아십시다.

합 창 :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창극 《춘향전》 제2막 2장 <사랑가>)

몽룡과 춘향은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한 후, 죽어서도 각자 종로의 인경과 인경마치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越劇 《春香傳》에서는 두 사람이 백년 후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노래한다.

이몽룡 : 춘향아, 너는 長安 鐘樓의 萬壽鐘이 되고, 나는 撞木이 되어 종을 치리.

춘 향 : 일경을 치는 소리, 당당딩.

이몽룡 : 이경을 치는 소리, 덩딩동.

춘 향 : 남들이야 시간 알리는 종 치는 줄로 알고,

이몽룡 : 뉘라서 너와 내가 종루에서 만난 줄 알겠는가.

춘 향 : 우리끼리 치고 우리끼리 듣고,

이몽룡 : 우리끼리 치고 우리끼리 알자꾸나.

춘 향 : 춘향은 당당딩.

이몽룡 : 몽룡은 덩딩동

합 계 : 춘향과 몽룡, 몽룡과 춘향의 사랑의 종이로구나.<sup>29)</sup> (越劇 《春香傳》

第2幕 第2場 <愛歌與別歌>)

越劇에서는 창극과 달리 죽음 이후라는 설정을 삭제하고 백년 후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있다. 이는 현실을 지향하는 중국인의 인생관을 반영한 변화라고 하겠다. 越劇은 창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문학적인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음악적인 운율미에 집중하고 있다. ‘종로 인경’은 ‘長安鐘樓의 萬壽鐘’으로 변환시켜 중국적 색채를 가미하였다. 창극에서 춘향과 몽룡이 상징하는 종소리가 ‘땡땡’으로 같은 반면, 越劇에서는 ‘당당당’, ‘딩딩동’ 등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潮劇에서도 두 사람은 죽음 이후가 아닌 백년 후 변화된 모습에 대해 상상한다.

이몽룡 : 나는 변하여 紫禁城 안 龍鳳鼓가 되고, 너는 변하여 長安 鐘樓의 萬壽鐘이 되어.

춘 향 : 종소리 당당당.

이몽룡 : 북소리 동동동.

춘 향 : 종소리 천 사람의 꿈을 두드리고,

이몽룡 : 북소리 백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리.

춘 향 : 다른 사람들 종소리 듣기만 해도,

이몽룡 : 누구든 너와 나의 두 마음이 통하는 것을 알게 되리.

춘 향 : 춘향이는 당당당.

이몽룡 : 몽룡은 동동동.

춘 향 : 상진벽해 제 아무리 변한다한들,

이몽룡 : 종과 북 만년동안 영원히 울리리.<sup>30)</sup> (潮劇 《春香傳》 第3場<愛歌, 別歌>)

越劇에서 춘향은 ‘長安 鐘樓의 萬壽鐘’이 되고 몽룡은 ‘종을 치는 撞木’이 되자 고 다짐하는데, 潮劇에서는 다시 변화를 감행하여 이몽룡은 ‘紫禁城 안 龍鳳鼓’

29) 夢龍: 春香! 你變那長安鐘樓萬壽鐘, 我變槌兒來打鐘. 春香: 打一更, 當當叮, 夢龍: 打二更, 叮叮當. 春香: 人家只道是打更鐘, 夢龍: 誰知是, 你我鐘樓兩相逢. 春香: 自己打鐘自己聽, 夢龍: 自己打鐘自己懂, 春香: 春香當當叮, 夢龍: 夢龍叮叮當. 合: 是一口春香夢龍夢龍春香恩情鐘!

30) 夢龍: 我變作紫金城內龍鳳鼓, 你變作長安鐘樓萬壽鐘. 春香: 鐘聲鳴, 噹噹噹, 夢龍: 鼓聲響, 哆哆哆. 春香: 鐘聲敲醒天家夢, 夢龍: 鼓聲訴盡百姓衷. 春香: 別人祇聞鐘鼓響, 夢龍: 誰知是你我兩心通. 春香: 春香噹噹噹, 夢龍: 夢龍哆哆哆. 春香: 滄桑桑田多變故, 夢龍: 鐘鼓萬年永鼓動.

가 되고 춘향은 ‘長安 鐘樓의 萬壽鐘’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潮劇은 越劇의 기본적인 내용을 흡수하면서도 문학적인 면에서 섬세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음의 남성적인 소리를 내는 북소리와 고음의 여성적인 소리를 내는 종소리를 통해 대비를 이루고 있다. 越劇에서 춘향의 종소리가 ‘당당당’ 이몽룡의 종소리가 ‘딩딩딩’인 반면, 潮劇에서 춘향의 종소리는 ‘당당당’ 이몽룡의 북소리는 ‘둥둥둥’이다. 음양의 조화를 고려한 음향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sup>31)</sup> 또한 “종소리 천 사람의 꿈을 두드리고, 북소리 백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리.”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 “상전벽해 제 아무리 변한다한들, 종과 북 만년동안 영원히 울리리.”라는 구절은 작품이 추구하는 영원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 역시 越劇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대목이다.

《춘향전》의 <이별가> 장면은 춘향의 심리가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창극에서 몽룡이 춘향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한양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춘향은 몽룡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 향 : (눈을 반짝이며) 이는 댁의 경사인데 울기는 왜 우시오. 옳지, 내가 안 따라 갈가 보아 그러시오?— 녀필 중부라니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싫지 않소. 도련님 정말이죠? 날 속이지 않으시죠?— 내 평생 원일려니 이제 한양 가겠구나 ..... (창극 《춘향전》 제2막 3장 <리별가>)

춘향의 말에는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에 들떠 기뻐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어서 몽룡은 춘향과의 혼사로 인해 혼이 났다는 비보를 전한다.

리도령 : 량반의 자식으로 친척 두었던 말이 나면 죽보에 이름 떼고 사당 참여 안 시킨다니 ..... 이 아니 난처하냐.

— 춘향이 그 말 듣자 어여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눈썹이 꿈꿈하더니, 문득 먼

31) 양희석 교수의 지적처럼 越劇에서 춘향의 메타포인 萬壽鐘과 이몽룡의 메타포인 撞木은 성적인 상징물에 해당하고, 이는 조선판 원본에 드러난 적나라한 성애의 묘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越劇이라는 移植本을 다시 이식한 潮劇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상징성은 사라지고 문학적 비유만 남았다.



경 체경 물리치고 문방사우를 와지끈 탕탕 깨트리며,

춘 향 : 서방 없을 춘향이가 세간하여 무엇하며 당장하여 뉘 눈에 필요. (창극 《춘향전》 제2막 3장 <리별가>)

몽룡의 말에 춘향의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변한다. 천 리 만 리 따라가겠다는 춘향의 기쁨은 곧 절망으로 변하고 이는 춘향의 발악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춘향전》이 그러하듯 이렇게 시작한 춘향의 발악은 월매의 발악으로 연결된다.

越劇에서 몽룡이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춘향의 반응은 창극과 거의 유사하다.

춘 향 : 이는 도련님 집안의 경사군요. 내일 가신다니, 아이참, 짐을 꾸리자면 시간이 빠듯하겠네요! ..... 혹시 제가 한양에 따라가지 않을까봐 그러세요? (위로하며) 마음 놓으세요. 바다 끝 하늘 끝까지라도 도련님을 따라 가고 원망일랑 없겠어요.<sup>32)</sup> (越劇 《춘향전》 제2막 2장 <愛歌與別歌>)

기뻐하는 춘향은 잠시 이별하자는 몽룡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춘 향 : 이별이라뇨? 잠시 이별이라뇨? 저는 가시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저는 가시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어 탁자 위의 菱花鏡을 바라보며) 낭군님 없는 춘향이, 이런 물건이 무슨 소용이리! (춘향이 경대를 밀고 서럽게 통곡한다)<sup>33)</sup> (越劇 《춘향전》 제2막 2장 <愛歌與別歌>)

춘향의 발악 장면은 창극에 비해 상당히 유순하게 처리되었다. 창극에서 춘향은 먼경, 체경, 문방사우를 모두 외장창 물리치지만, 越劇에서는 먼경 하나만을 밀어내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고아함을 추구하는 越劇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32) 春香: 那是公子家的喜事, 明日就走, 啊呀! 我還來不及整理行裝呢! ..... 是不是怕我不願隨你同去漢陽? (安慰他) 你放心, 任憑海角天涯, 我總隨伴公子, 決無怨言.

33) 春香: 離別? 暫時離別? 我不能讓你去, 我是不會讓你走的! (抬頭見桌上菱花鏡) 將要沒有郎君的春香, 要這些東西有什么用! (春香推鏡慟哭)

潮劇에서 몽룡이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춘향의 반응 역시 창극 및 越劇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춘 향 : 도련님 설마 제가 한양에 같이 가지 않을까봐 그러세요? 마음 놓으세요. 저는 언제나 도련님 곁을 따르며,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潮劇 《春香傳》 第3場 <愛歌, 別歌>)

춘향은 몽룡을 위로하며 몽룡의 품에 안긴다. 이어서 잠시만 이별을 하자든 몽룡의 부탁에 춘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춘 향 : 잠시 이별이라니 잘도 그러겠어요. 가실 수 없어요. 가시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sup>34)</sup> (潮劇 《春香傳》 第3場 <愛歌, 別歌>)

춘향의 태도는 越劇에 비해 더욱 유순하게 처리되었다. 춘향의 슬픔은 발악으로 진전되지 않고, 월매와 향단이 등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만다. 越劇에서는 그나마 춘향이 면경을 밀어내며 반항하지만, 潮劇에서는 이마저도 생략되었다. 移植이 진행됨에 따라서 춘향의 형상에 대한 미화와 순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종법제도의 전통을 중시하는 潮州人의 생활습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창극 《春香傳》의 주제는 越劇이나 潮劇에 비해 복잡하다.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은 주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계급적 차이와 투쟁, 양반사회에 대한 풍자, 봉건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커다란 쟁점이다. 그러나 越劇 춘향전은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고, 潮劇은 한 단계 더 예술적 가공을 가하여 춘향의 형상을 순화시키고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욱 주력하였다.

www.kci.go.kr

34) 夢龍: 春香, 你我確是結髮夫妻, 決無二心. 如今雖不能同行, 也祇是暫時離別, 春香: 好一個暫時離別. 你不能去, 我不能讓你離去.

## 5. 결론

북한 창극을 이식한 越劇《春香傳》은 중국 무대에 《春香傳》을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越劇은 연출에 있어 융통성이 큰 젊은 극종이라는 점, 설창 예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일정한 선율을 몇 가지 판식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노래한다는 점에서 唱劇과 매우 유사하다. 또 越劇은 여성 극단으로서 애정고사의 연출을 장기로 한다. 이런 점에서 越劇은 唱劇《春香傳》을 이식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극종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越劇을 다시 이식하여 만들어진 潮劇《春香傳》은 越劇《春香傳》에 비해 더욱 섬세한 문학적 변용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고, 한층 더 고아하고 세련된 《春香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春香傳》이 중국으로 이식된 계기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과 북한과 중국이 《春香傳》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春香傳》이라는 위대한 고전이 가진 힘을 확인하게 해준다. 潮劇《春香傳》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전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다.

### < 參考文獻 >

- 양희석(2004), <越劇《春香傳》初探>, 《고전희곡연구》 제6집.  
 常平(2005), <我與潮劇緣份深>, 《汕頭日報》 2005.5.22.<sup>36)</sup>  
 柳蘭翰, <歸僑潮劇作家王菲>, 汕頭市外事僑務局.<sup>37)</sup>

35) 양희석, <越劇《春香傳》初探>, 455쪽.

36) <http://news.sina.com.cn/s/2005-05-22/1241595520s.shtml>

37) <http://www.faost.gov.cn/Gb/journal/journal03-2/crjy2.asp>

陳學希(2003), <潮劇院舉辦蔡錦坤黃秋葵林明才從藝70年紀念活動-梨園七十載曲海知音人>, 《汕頭日報》, 2003.09.27.<sup>38)</sup>

葉春生·林倫倫(2010), 《潮汕民俗》, 廣東省出版集團.

莊志(1955), 《春香傳》, 上海文化出版社.

莊志(1962), 《春香傳》, 上海文化出版社.

廣東潮劇院(년도 미상), 潮劇《春香傳》(VCD), 潮汕:廣東潮劇院.

上海越劇院樂隊(년도 미상), 越劇《春香傳》(VCD), 楊州:楊州龍翔音像有限公司.

### < 中文提要 >

《春香傳》在韓國古典文學史上的地位，正如《梁祝》、《紅樓夢》之於中國古典文學一樣，是韓國人家喻戶曉的一部古典文學名著。1954年根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立古典藝術劇場同名演出本移植改編。劇本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外務省安孝相翻譯，華東戲曲研究院編審室改編，庄志執筆。該劇於1954年8月2日，由華東越劇實驗劇團二團首演於長江劇場。潮劇《春香傳》是由王菲先生根據上海同名越劇移植改編的；作曲是黃秋葵先生和楊廣泉先生。黃、楊兩先生的合作可謂珠連璧合。潮劇《春香傳》的開場音樂用典型的朝鮮音樂曲式，既交代了作品的地理背景，又在輕快的樂曲聲中展現了春游的畫卷。《愛歌》的深情密意、《別歌》的纏綿惆悵和《獄中歌》的如泣如訴，淋漓盡致、餘音繞梁。

關鍵詞：春香傳、潮劇、越劇、唱劇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0. 31.	2012. 11. 16.	2012. 11. 21.	2012. 11. 30.

www.kci.go.kr

38) <http://www.southcn.com/news/gdnews/areapaper/200309270969.htm>